

글로벌 시황 브리핑: 중동발 쇼크와 코스피의 역사적 폭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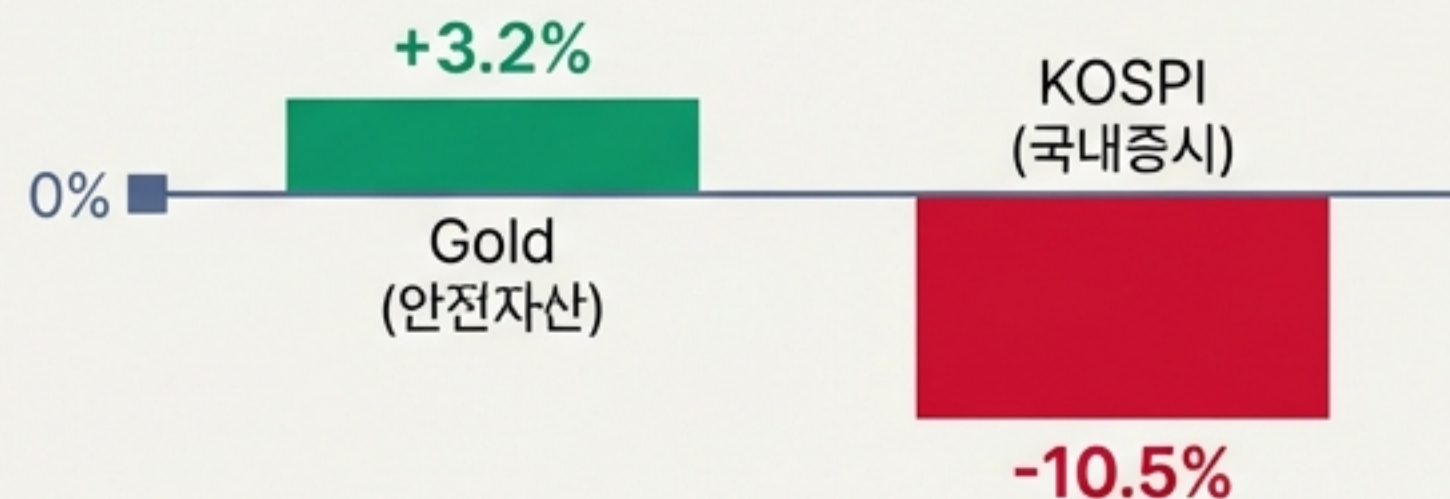
2026년 3월 4일 장마감 경영진 보고서

Market Close Report | Executive Briefing

▼ **10.5%**
KOSPI 지수 폭락

-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따른 투자심리 붕괴, 하루 낙폭 최대 기록.
-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 동반 대규모 매도세, 시가총액 약 120조원 증발.

주요 자산 수익률 비교 (일간)



- 안전자산 선호 현상 극명화, 금, 달러화 강세. 증시 불확실성 지속 전망.

9·11 이후 최악의 하락장, 생존을 위한 포트폴리오 재편 시급



-12.06%

핵심 쇼크

- 코스피 5,093.54 마감
- 양시장 서킷브레이커 발동 및 시총 527조 원 증발
- 외국인의 기록적 매도세(371.8만 주)



\$75.44

매크로 촉매

- WTI 원유 급등
- 미·이란 전쟁 격화 및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
- 유가 변동성이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공포 촉발



시장 양극화

- 아시아 증시 동반 급락 속 금·비트코인 등 안전자산으로의 자금 대도피 현상 발생



대응 전략

- 향후 2~3일 내 기관 매수세에 따른 기술적 반등 대비
- 방산주 비중 확대 및 암호화폐/금 헷지 유지

미·이란 분쟁 격화로 촉발된 유가 급등과 금리 인상 공포

지경학적 위기 고조

- 미·이란 전쟁 위기 및 호르무즈 해협 봉쇄 리스크 부각.
- 글로벌 공급망 차질 우려로 K푸드·뷰티·여행업계 직격탄.

에너지 및 채권 시장의 즉각적 반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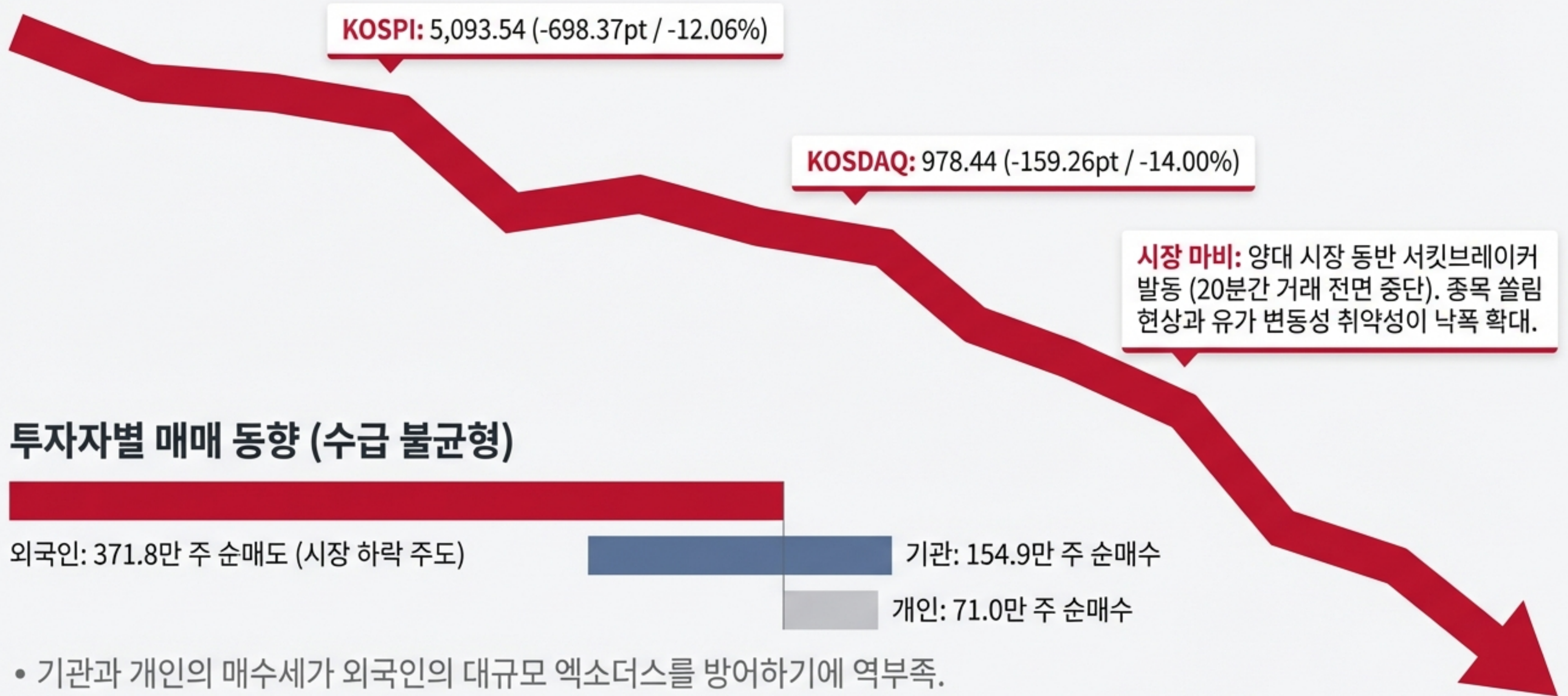


WTI 원유: \$75.44 (+\$2.62) / 전주 대비 최대 6.7% 급등.
OPEC 감산 연장 기대감 중첩.

미 국채 10년물: 4.063% (+5bp)

- FOMC 매파 기조 강화 및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 확산.

코스피, 시가총액 527조 원 증발하며 9·11 테러 이후 최대 낙폭 기록



전 산업군 붕괴 속 주력 메가캡(Mega-Cap) 종목들의 치명적 타격

최악의 타격 섹터

의료정밀: -16.62% ↓	기계: -14.60% ↓
섬유의복: -14.50% ↓	제조업: -14.49% ↓
	건설업: -14.38% ↓

시가총액 상위 종목 초토화

종목	현재가 / 등락률
현대차	501,000원 (-15.80%) ↓
LG화학	307,000원 (-14.96%) ↓
POSCO홀딩스	321,500원 (-14.15%) ↓
기아	156,700원 (-14.04%) ↓
삼성전자	172,200원 (-11.74%) ↓
LG에너지솔루션	347,500원 (-11.58%) ↓
SK하이닉스	849,000원 (-9.58%) ↓



S&P 500

6,800.26 (+0.00%)



DOW JONES

48,493.11 (+0.00%)



NASDAQ

22,748.86 (실질적 1%대 하락 체감)

미국 증시 보험세 이면의 나스닥 약세와 ‘1.8조 달러 금리 시한폭탄’

뇌관 부상: 월가를 덮친 1.8조 달러 규모의 금리 시한폭탄 공포가 나스닥 기술주 투자 심리 훼손.

하락 주도: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로 테슬라 및 반도체 관련주 급락.

상승 헛지: 소프트뱅크 산하 ‘페이페이(PayPay)’ 나스닥 상장 이슈(기업가치 2조엔 육박)로 일부 소프트웨어(SW) 주 급등. 부동산(+7.42%), 에너지(+2.00%) 강세.

아시아 전역으로 번진 패닉 셀링, 기관의 5,078억 달러 역대급 자본 이탈

아시아 (한국 발 쇼크 동조화)

- 일본 닛케이 225: -1.43% (엔화 약세발 수출주 강세에도 하락)
- 홍콩 항셱: -1.43% ↓

유럽 (방산주 중심의 방어)

- 독일 DAX / 영국 FTSE 100: -1.43% ↓
- STOXX 50: +0.62% (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기대감 및 방산주 강세 견인)

중국/호주 (자원주 방어)

- 중국 상하이종합: +0.45% / 선전성분: +0.62% (본토 증시 정상 거래)
- 호주 ASX 200: +0.52% (자원주 중심 상승) ↑

역대 최대 외화증권 투자: 국내 기관의 해외 주식 베팅 규모가 사상 최대치인 **5,078억 달러** 돌파, 국내 증시 수급 공동화 가속.

극단적 위험 회피: 금과 비트코인으로 쏟아지는 피난처 자금

안전자산의 폭발적 랠리



비트코인 (BTC): \$103,000 (+\$1,240)

- 지정학적 리스크 헷지 수단으로 부각되며 ETF 순유입 지속. 하루 새 830억 원 추가 유입.



금 (XAU): \$103,000 (+\$18)

- 구조적 위험 신호 장기화 전망에 따른 견조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.

환율 및 외환시장 동향



원/달러 환율: 1,445.00원 (-5.30원)

- 글로벌 달러 약세에 따른 원화의 상대적 강세.



달러인덱스: 157.2340 (-0.32)

- 유로화 강세(EUR/USD 1.1790, +0.0031 / ECB 금리 경로 재평가)로 인한 달러 지수 하락.

위기 대응 전략: 단기 기술적 반등 대비 및 방어적 포트폴리오 구축



1. 코스피 단기 기술적 반등 포착

- 외국인의 패닉 셀링과 과매도 구간 진입. 향후 2~3일 내 기관 순매수에 기반한 증권가 리서치센터의 단기 고점 회복 (기술적 반등) 시나리오 대비.



2. 나스닥 변동성 촉매제 모니터링

- 금주 발표될 미국 ADP 및 비농업 고용 지표 결과에 따른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여부가 나스닥 방향성의 핵심 관건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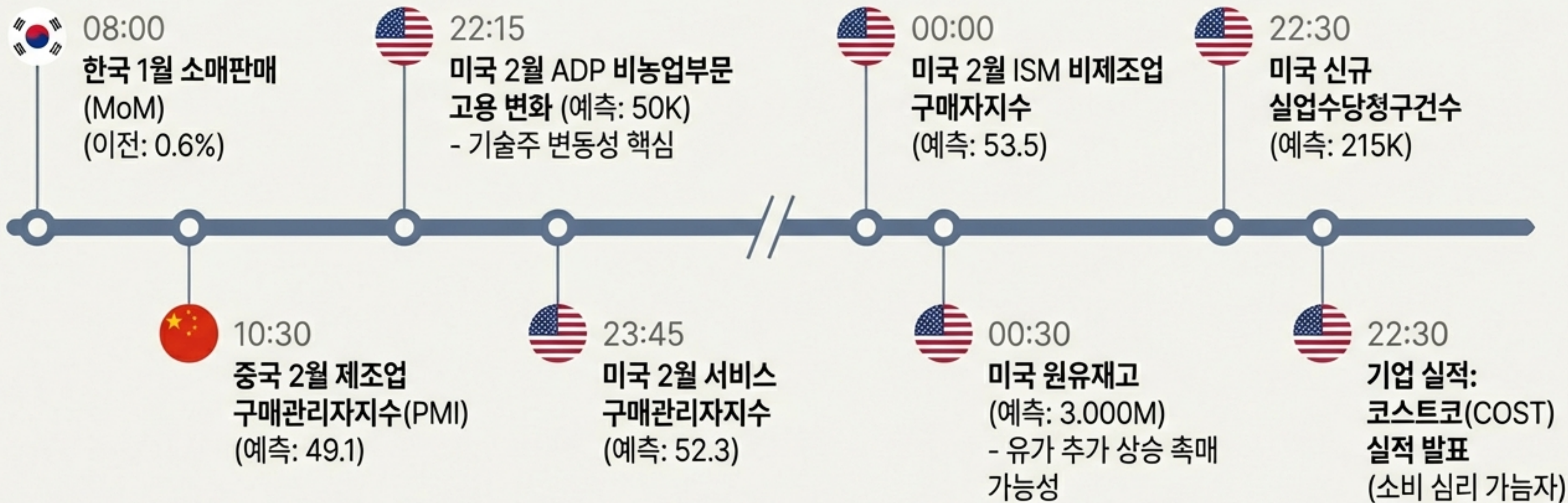
3. 안전자산 및 방산 섹터 비중 확대

-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에 대비하여 금·비트코인 헷지 물량을 유지하고, 미국 및 유럽 방어(방산) 섹터 비중 확대 권고.

리스크 레이다: 단기 시장 변동성을 결정지을 핵심 매크로 지표 (수-목)

Wed · 3월 4일 (오늘)

Thu · 3월 5일



리스크 레이다: 고용 및 성장 지표 발표에 따른 금리 향방 점검 (금-화)

Fri · 3월 6일

Tue · 3월 10일

